

제15회 북미한인올림픽

하키 '타이거스' 도 출전

한인 아이스하키 선발팀 '코리언 타이거스'가 오는 6월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 15회 북미한인올림픽'에 참가한다.

한인올림픽 주최 측은 최근 하키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고 캐나다대표팀 선발을 맡고 있는 KCAA(Korean Canadian Athletic Association)에 공문을 보내왔다. KCAA의 김준식 대

표는 "하키 부문에 한인 선발팀 코리언 타이거스를 출전시키기로 했다. 하키 종주국 캐나다의 힘을 보이고 오겠다"며 호성적을 자신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캐나다는 4종목(남자하키·남자축구·남자농구·여자배구) 대표팀을 파견하게 됐다.

이와 관련 KCAA는 오는 18

일(토) 밤12시 요크대 아이스가든에서 타이거스 선발전을 치른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장비와 10달러를 지참해야 한다. 또 KCAA는 한인회관·쏘힐고·윌로우우드고 등 3군데에서 남자축구·남자농구·여자배구 3종목 대표팀 선발전을 치르고 있다. 자격조건은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한인(영주권자 이상). 개인장비와 5달러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장소와 시각은 웹사이트(www.kcaa.ca) 참조.

정재호 기자